

보도시점 2024. 2. 16.(금) 08:00 배포 2024. 2. 16.(금) 08:00

한국 탁구 100주년, 국내 최초 탁구 세계선수권대회 부산에서 열린다

- 2. 16.~25. 부산 벅스코에서 ‘2024 파리올림픽’ 탁구 단체전 출전권 16개 걸린 세계 대회 개최
- ‘2023 항저우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신유빈·전지희 선수 출전, 활약 기대
- 2. 17. 유인촌 장관 개회 선언, “부산에서 탁구 차세대 스타 탄생 기대”, “탁구 저변 확대로 활력 있는 스포츠 강국 되길”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2월 16일(금)부터 25일(일)까지 부산 벅스코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40개국 선수단 약 2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자, 남자 단체전 2개 종목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2월 17일(토) 오후 4시, 벅스코 제1전시장에서 세계탁구 선수권대회의 국내 개최를 축하하고 대회 개최를 선언한다.

국제탁구연맹(ITTF)이 주최하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매년 개인전과 단체전을 번갈아 개최한다. 올해는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를 주관하며 남녀 단체전 2개 종목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24 파리올림픽’ 탁구 단체전 출전권 16개가 걸린 대회이자, 1924년 한국 탁구가 시작된 이래 100주년이 되는 해에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대회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

대한민국은 여자 단체전에 신유빈, 전지희, 이시온, 윤효빈, 이은혜 선수가, 남자 단체전에 장우진, 임종훈, 이상수, 박규현, 안재현 선수가 출전한다. 신유빈과 전지희 선수는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복식에서 21년 만에 금메달을 딴 만큼 이번 대회에서도 메달 획득 기대를 높인다.

취타대 행진, 레이저 공연, 가수 소향 축하공연 등 화려한 무대로 대회 시작 알려

대회 개최식(2. 17.)에서는 우리나라 전통문화 공연 취타대 행진과 대회 표어인 ‘원 테이블, 원 월드(One Table, One World)’를 주제로 탁구를 형상화한 이디엠(EDM) 레이저 공연, 가수 소향이 공식 주제가 ‘윈 포 유(Win for you)’를 선사하는 축하공연 등 화려한 무대로 대회 시작을 알린다.

유 장관, 부산지역 문화사업 현장도 방문

아울러 유인촌 장관은 대회 개최식 전에 부산지역 문화사업 현장을 찾아간다. 버려진 폐공장을 활용해 창의적이고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에프(F)1963’을 방문해 기존의 것을 재창조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문화와 콘텐츠의 힘을 확인한다.

유 장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차세대 탁구 스타가 부산에서 탄생하고 생활체육으로 쉽게 즐길 수 있는 탁구의 저변이 확대되어 우리나라가 활력 있는 스포츠 강국이 되길 바란다. 또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케이-컬처의 힘도 전 세계에 알리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붙임 대회 포스터

담당 부서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	책임자	과장	명수현 (044-203-3161)
		담당자	사무관	강승 (044-203-2792)





대회명 BNK부산은행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기간 2024.2.16~25 (10일간)

규모 남·여 각 40개국 2,000여 명 참가
대회종목 남자단체전, 여자단체전 / 2개 종목

부대행사 국제탁구연맹 총회 등 약 40여개 회의 개최
생활체육 및 유소년 탁구대회